

목포시의료원 서남권 거점 공공병원 '우뚝'

220억 들여 재활요양병원 준공 등 고품질 의료서비스

목포시의료원이 노후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서남권 거점 공공병원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 의료원(원장 최태욱)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재활요양병동을 준공한데 이어 의료원 본관 시설개보수공사도 막바지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최신 장비 구입과 함께 적

주·관절센터의 우수 의료진을 초빙해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온 의료원은 내년부터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등을 신규로 개설, 지역민들에게 특화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병원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의료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종합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술의 예방적 환자케어' 설문조사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3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전남 서남권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목포시의료원이 내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B등급을 받았으며, 평가항목 중 환자 만족도 부문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했다.

시 의료원은 내년부터 1개 병동 50명상 규모로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온 간병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본관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장례식장을 확장 개선해 직영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최태욱 원장은 "내년에도 찾아가는 무료진료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윤택한 의료서비스를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o@

예산 제대로 못 쓴 무안군

집행률 60% 불과... 의료복지·지역개발사업 등 난항

무안군이 이미 확보한 예산의 6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처리 지연과 민간 보조사업 미집행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5일 무안군 예산집행현황 및 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전체 지방재정예산 4313억8885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2588억8955만3000원으로 잔액이 1724억9929만7000원에 달했다. 집행률은 60.0%에 불과해 보육료 지원, 노인 의료복지사업, 농업보조금,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3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금고에 처박혀 있다.

도민체전 시설사업비 예산 51억 7000여만원 중 집행액이 6억2000여만원(집행률 12.9%)에 불과해 내년 체전의 성공 개최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태갯벌 경관 조성사업'(45억 5000여만원), '분청사기 명장 주변 조성사업'(16억6000여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13억2000여만원), '공도 장 조성사업'(12억2000여만원) '남양 복합문화센터 건립'(40억여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분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될 처지다.

지난 12일까지 군 자체 집행 결과군의 22개 실·과·소 가운데 관광문화과의 집행률이 20.8%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남양사업소 31.4%, 체육시설사업소 31.7%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의 역점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복지실의 경우 미집행 금액이 113억2000여만원, 지역개발 및 건설교통과 296억5000여만원, 친환경

군 관계자는 "군 관리계획변경과 같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이를 마무리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목포대 '찾아가는 지역 행복축제' 호응

목포대(총장 고석규) 생활과 화예미술체육대학(학장 조혜정)은 지난 12일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2주년을 기념해 '찾아가는 지역 행복 축제'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찾아가는 지역 행복 축제'는 목포대 봉사 동아리인 '행복나눔미'가 주최했으며, 지난해 무안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행복나눔미'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응원하는 동아리로,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아동·식품영양·의류·음악·미술·체육 등 6개 학과가 각각 특성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봉사하

고 있다.

교수·조교·학생 등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축제에서는 목포대 행복나눔미에서 준비한 미술·의류 작품 전시, 북 아트 전시 및 영양 상담, 머핀 나누기 그리고 요가, 솜이음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호평을 받았다.

조혜정 학장은 "지역에 봉사한다는 마음에 목포대 행복나눔미 학생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더 즐거워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진도 하조도 등대 새단장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등대가 새롭게 단장돼 지난 12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룡)이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2억원 들여 하조도 등대를 해양 친수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조도(鳥島)를 나타내는 어미 새 형상의 포토존형, 하조도 전경 아트타일, 포토 방명록 등 관광객을 사로잡을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섰다. 해조도 등대는 지난 1909년 2월 첫 불을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신안, 울 국비지원사업 공모 357억 확보

신안군은 15일 "정부부처 및 단체 등에서 주최한 각종 평가에서 18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해 행정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울해 수상한 주요 표창은 제6회 SBS 물 환경대상 종합대상, 대중교통 시책 우수기관 최우수상, 에너지 글로벌 어워드 국가상, 5년 연속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수상,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진대회 대상 등 분야도 다양했다.

또 다양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환경보호 사업 등에 3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확보한 국비 공모사업은 압해읍 소재 종합정비사업 100억원, 임자진 리권역 종합정비사업 43억원, 세계생태수도 섬 조성 120억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 30억원, 흑산 진리 소하천 정비사업 30억원,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17억원 등 11건에 357억원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leslee@

전북



정읍 미생물 바이오산업 메카 된다

정읍을 모두 마쳤다.

신정동 생명연 내에 들어서는 가치평가센터 건립에는 모두 280억원이 투입돼 4만1116㎡의 부지에 연건평 7270㎡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15년 준공된다. 가치평가센터는 국가 미생물 자원 보존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자원 공유와 기능성 미생물 자원의 산업적 활용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미생물가치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 대형사업과 공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미생물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동학혁명 기념행사도 못치를 판”

내년 120주년 ... 국비요구액 24억중 1억만 반영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내년 행사의 예산이 대폭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15일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행사 예산으로 국비 24억원을 요청했으나 23억원이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남은 1억원을 올해 충북 보은에서 119주년 기념대회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내년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르려 했다.

120주년이 되는 내년은 동학혁명 2

주갑(周甲)이 되는 해인 데다 동학란에서 혁명으로 인정되는 명예회복이 이뤄진 뒤 맞는 첫 갑오년이기 때문이다.

동학혁명을 프랑스로 대항해, 러시아 혁명 등과 어깨를 견주는 세계 4대 근대 시민혁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제학술회담과 특별 전시회, 창작공연을 계획했고 고부봉기와 무장기포 날에 맞춘 기념행사도 열 방침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이 적용되면서 1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쳐 이런 계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내년은 어느 해와는 다른 여러 의미가 있다"며 "동학혁명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안타까워 했다.

정읍시의회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혁명적 실천 운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세계 4대 근대 시민혁명으로써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을 공식 건의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고창공무원노조-완도공무원노조 업무 협약

고창공무원노동조합과 전남 완도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발전의 성공도모하고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용준 고창군노조위원장과 김범일 완도군노조위원장을 비롯 한 양 노조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화합과 우호증진을 통해 지역축제와 안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안전문화운동 추진 순창군협의회 출범

순창군은 지난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순창군협의회(이하 '안전협') 출범식을 가졌다.

안전협은 황숙주 군수와 순창군 자율방재단 실기호 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경찰서, 순창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관계자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군민안전 종합대책 22개 중점관리 과제에 대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순창군과 모범안전회의의 안전문화 협약식도 열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황토배기유통, 평택 송복시장 상인 초청 홍보

(주)고창황토배기유통(대표 김광욱)은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시 송복 전통시장 상인회(회장 김근미) 회원 40명을 초청해 주요 농산물을 홍보하고, 유통시설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고추의 선별 및 가공과정을 직접 상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고창 농산품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대도시 시장개척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복 전통시장은 1961년 개설돼 현재 송탄 생활권역 일대에 140여개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1년도 지식경제부 전통시장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순창 장수비결, 한-일 공동연구 나선다

순창군은 15일 "행복하고 건강한 75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과 공동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2~3월께 시작될 이번 연구는 순창군이 주관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구례·곡성·담양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조사대상 지역도 4개 군이 포함돼 있으며, 조사 주체는 순창군 건강

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대전 우송대와 협조해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에 앞서 지난날 순창군 관계자가 연구방향을 위해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 나카자마 가즈오 교수를 찾아 협의를 마쳤다.

조사 설문내용은 일본 대학 측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건강관련 생활방법 중 식사운동·영양·심리적 안정·생활의 활기 등 7개 분야를 선정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공설시장 '협동조합 워크숍' 남원 공설시장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지난 13일 50여 명의 상인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협동조합 워크숍'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대, 오늘 학부모 초청 입시 설명회

전북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진수당에서 학부모를 초청해 입시 전형 설명회를 연다.

전북대는 올해 정시모집 입시와 지도 전략 등을 설명하고 컨설팅도 진행하며,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과 변화된 2015학년도 입시 전형도 안내한다.

한상인 입학본부장은 "해마다 바뀌는 대입 제도를 혼란을 겪는 대학입학과 선택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도 입시 정책 및 전형도 소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